

정읍시, 무단 방치 킥보드 견인한다

교통과 2인 1조 전담반 편성 교차로 등 불법 주차차 장소 견인료 3만원·보관료 등 부과

정읍시가 차도와 인도를 가리지 않고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에 대해 강력 대처에 나섰다. 정읍시는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 처리를 위해 교통과 직원 2명으로 구성된 전담반을 편성해 시내 곳곳에 무질서하게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견인하고 있다.

견인 대상은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금지 장소로 규정된 교차로, 횡단보도, 건물목, 버스정류장, 어린이 보호구역,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등이다.

적발된 전동킥보드는 한 대당 견인료 3만원과 시 공영주차장 요금표에 따른 보관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정읍경찰서에 보호장구 미착용, 탑승 인원 초과, 원동기 면허 미보유자 운행 등에 대한 단속을 요청했다.

앞서 시는 전동킥보드 이용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대여업체와 협의해 전용 주차장 7개소를 시범 설치했다. 향후 학원가와 상가 등 이용자가 밀집



정읍시가 차도와 인도를 가리지 않고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에 대해 강력 대처에 나섰다. 정읍시청 공무원들이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옮기고 있다. <정읍시 제공>

한 지역과 전동킥보드 주차 수요가 많은 곳에 전용 주차장을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최준양 정읍시 교통과장은 "불법 주·정차로 인해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전

동킥보드에 대해 강력한 행정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라며 "이용자들도 전동킥보드 이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고창군, 농촌협약 사업 계획지원단 가동

농촌계획·건축·복지 등 전문가 8명...농촌다움 회복 집중

고창군이 '농촌협약'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초계획지원단을 본격적으로 가동했다.

고창군은 지난 27일 고창군 공동체지원센터 2층 회의실에서 기초계획지원단과 회의를 갖고 3개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농촌협약 기초계획지원단은 농촌계획, 건축, 복지, 공동체, 거버넌스 등 분야별 전문가 8명과 행정, 용역사 등으로 꾸려졌다.

자문대상 사업은 고창읍 중심지 활성화사업(총 108억원, 5개년)과 부안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총 46억원, 5개년),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초계획수립사업(총 5억원)이다.

또 내년부터 시행될 대산면 중심지활성화사업

(85억원, 4개년), 해리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18억원, 4개년)이, 2026년 무장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16억원, 3개년)이 본격화됨에 따라 농촌협약 관련 사업이 연차별로 추진될 계획이다.

자문단은 군민 복지를 위해 고창읍(중심지)-면(기초거점)-배후마을을 연결해 지역 현안에 맞는 농촌공간계획 수립을 통한 지역민의 정주환경 개선과 '농촌다움' 회복에 집중할 방침이다.

성현섭 고창군 농촌협력과장은 "회의에서 제시된 전문 의견을 반영해 완성도 높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며 "군민이 행복한 활력 넘치는 고창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친환경 포장재 생산기업 남원에 70억 투자

(주)지엘그레이프, 일반산단 부지에 공장...해외 진출 계획도

8.(목) 남원시청 회의실 (주)지엘그레이프 전속 특별자치도



지난 28일 남원시청에서 열린 (주)지엘그레이프의 남원일반산단 투자협약식. 최경식(왼쪽) 남원시장과 지엘그레이프 김병열 대표가 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남원시 제공>

친환경 포장재 생산 기업 (주)지엘그레이프가 남원에 등지를 둔다.

남원시는 지난 28일 시와 전북자치도, 지엘그레이프(대표 김병열) 간의 남원일반산단단지 내 투자협약이 체결됐다고 밝혔다.

투자를 결정한 지엘그레이프는 70억원을 투입, 남원일반산단 부지 1만5877㎡에 건면적 3972㎡의 공장을 설립할 예정이다.

지엘그레이프의 주생산품은 친환경 포장재로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배달음식과 택배 등의 플라

스틱 포장재 사용규제와 맞물려 주목받고 있는 사업 분야다. 회사는 남원의 남부지역 제2공장 설립을 기반으로 국내시장 확장은 물론 해외시장 진출까지 계획 중이며 지역에는 30여명이 일할 수 있는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남원시에 투자를 결정한 김병열 대표께 감사드린다"며 "기업들이 남원에서 유망 중소기업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남원 향토문화대상' 이문환·오공순·조태봉 씨 선정

지역사회 발전 공헌 귀감

남원문화원이 올 한해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고 헌신적 활동으로 귀감이 된 '제24회 남원향토 문화대상' 수상자를 선정했다.

남원문화원(원장 김주완)은 전날 제4차 이사회를 열어 향토문화대상 수상자로 문화장 이문환 씨, 효열장 오공순 씨, 공익애향장 조태봉 씨를 각각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문화장 수상자 이문환(79)씨는 남원향교 교화 부장과 양사재장, 남원단군성전위원장을 역임하며 향교 유림과 장의들의 예절교육 및 집례교육을 관장해 지역의 향사가 지속되는 데 기여했다. 특히 남원향교 동재 서화회를 17년간 운영하며 지역



문화장 이문환 씨 효열장 오공순 씨 공익애향장 조태봉씨

서예초대작가 9명을 양성하는 등 예술 활동에 힘써왔다.

효열장의 오공순(여·76)씨는 16세의 어린 나이에 혼인 후 공무원이었던 남편이 젊은 나이 사고로

장애를 갖게 되면서 어려운 생활고를 겪었다. 또한 어린 시아머니 3명과 2명의 자녀까지 양육을 도맡았고 청각장애의 시아머니와 시아머니까지 봉양하며 60여년 머느리로서 도리를 다했다.

공익장 조태봉(72)씨는 대한적십자사 봉사단 남원지구협의회와 바르게살기운동 남원시협회 등 여러 봉사단체 활동을 통해 질서 확립과 탄소중립 실천문화 조성을 힘써왔다. 특히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헌신적인 봉사활동과 농촌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남다른 노력을 기울이며 지역사회의 귀감이 됐다.

남원문화원은 이번달 중순 시상할 계획이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고창군 장애인복지관, 홀몸어르신 영화 관람

180여명 대상 문화체험 행사...맞춤돌봄서비스사업 5년째

고창군장애인복지관이 지난 28-29일 고창동리 시네마에서 홀로 어르신 180여명을 대상으로 영화를 관람하는 문화체험 행사를 진행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사회참여 프로그램 일

함으로써 실시된 이 행사는 평소 여가문화체험을 접할 기회가 적은 어르신들에게 영화관람이라는 또 하나의 추억을 선사해 호응을 얻었다. 영화관람체험은 5년째 이어지고 있는 사업이다.

영화관람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TV만 보고 말로만 들었지. 영화관은 처음이다"며 "화면도 크고 팝콘도 먹어보고 너무 신기하고 재미있는 경험이었다"며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정종만 고창군장애인복지관 관장은 "평소 영화관에 오시기 힘든 어르신들에게 또 하나의 추억을 만들어 드릴 수 있어 뜻깊은 행사였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사회참여와 문화 향유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정읍시, 국가유산·전통사찰 소방시설 점검

정읍시가 국가유산과 전통사찰의 안전을 위한 화재 예방에 나섰다.

정읍시는 관내 국가유산 및 전통사찰 134개소 중 중요 목조문화유산인 '피향정' 등 국가유산 53개소를 비롯해 내장사 등 전통사찰 10개소까지 총 63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던 소방방재시설 일제 점검을 마쳤다고 1일 밝혔다.

화재의 예방과 발생 시 신속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한 시는 소화기의 유효기간, 지시압력 계 압력 이상 유무, 소화전의 정상작동 여부 등이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이와 함께 화재시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필요 설비의 교체와 보수 등 정비를 병행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